

동시적 접근, 그 통시적 제안

A Simultaneous Approach, a Temporal Proposal

대담자 / 임석재(이화여대 건축과 교수)

설계자 / 변 용(원도시건축)

by Byun Yong & Lim Seok-Jae

일 시 / 98. 6. 12(금) 16:00

장 소 / 원도시건축



대담장경(왼쪽: 변 용, 오른쪽: 임석재)

임석재 _____ 크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전문대학을 한번에 전체를 설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을 통해서 제안한 컨셉은 무엇입니까?

변 용 _____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시도되었습니다.

첫째로, 대학마스터플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각에서 수사학적 접근 개념이고 둘째로, 52만평 대지와 해발100m부터 360m까지의 편차를 가져 고저 차가 심한 대지의 형국에서 새 질서를 찾아 주는 개념이 제안되고 셋째로, 아카데미 프랜으로부터 설정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제안으로써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인 프라스트락처까지를 포함합니다.

각 개념별로 부연하면 대학건축이 가져야 하는 의사중 하나는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기억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각 장소에 전제되어지는 시퀀스마다 건축적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수사적 어휘로 표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찾는 개념은 현장을 처음 접하면서 흔재된 콘타의 형상은 어느 건축보다 더욱 강렬한 질서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한 형식의 질서가 존재하여 주변의 능선들의 불협화음을 조율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기하학적으로 완성형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주변을 수용하는 형상이 되기를 기대하였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제안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동아방송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원도시건축의 작품마다 습관적이라 할 정도로 제안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80년대에

성균관대학 마스터플랜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수와 학생 동선, 학생의 일반교과와 실습교과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체계 설정이 표현되고 시도된 점을 이 프로젝트의 컨셉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념으로는 이 학교가 방송대학이므로 해서 건축물 자체가 촬영세트화한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건축이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임석재 _____ 이중 첫 번째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수사학적 접근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퀀스의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이중 어떤 종류의 수사적 어휘가 쓰였는지...

변 용 _____ 학교가 접지하고 있는 콘타, 즉 물리적 형상이 약 30m 정도마다 1개층 정도가 차이나도록 경사 분포를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별로 계단식 단면이 되어 적응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로 레벨이 다른 마당들을 각 건물별로 갖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 각각의 마당이 차별화되어 개성있는 장소성을 갖도록 하지는 의도였습니다.

먼저 이 의사가 구체적으로 물리적 형상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했고 그 수단이 되는 것을 시퀀스의 연출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퀀스가 일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려면 그 의미를 수사하는 건축어휘를 설정하고 그 어휘에 충실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시퀀스에 다양한 의도가 혼용되는 것을 막고 절제된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관의 누하진입이 그러하고 건축물간에 마당이 양쪽으로 열려 있는 양개마당 등이며, 거론되었던 시퀀스의 주제는 점증, 바람, 조절 등이었습니다.

임석재 _____ 캠퍼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사지를 이용하여 아늑한 장소를 만들려는 의도를 느끼게 해 줍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잘 살려진 것 같습니다. 대지의 자연적 조건을 처리한 의도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 용 _____ 대지를 해석하는 능력은 건축가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감성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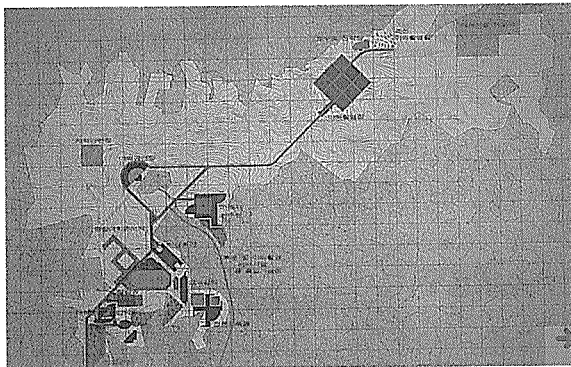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인문사회적 요소나 물리적 분석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건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캠퍼스 대지가 마스터프랜을 갖고 있지만 대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학이라 해도 또 다른 아카데미프랜이었다면 어땠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상대적 가능성의 검토가 대지를 읽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자연적 조건을 운용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대학의 중심이 되는 원형의 객관적 근거는 가용지분석으로부터였습니다.

본관, 강의동, 실습동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가용지를 찾고 혼란한 지세를 정리해줄 정돈된 기하학적 원형을 원으로 선택, 콘타에 적용하여 결국 현재와 같은 원형이 된 것이지요.

임석재 _____ 배치도나 모델을 보면 캠퍼스 윤곽을 구성하는 타원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원형 속에서 건물들이 배치되는 형상들도 기하학적 의도를 많이 느끼게 해 줍니다. 기하학적 형태를 도입한 의도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물에 적용시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변 용 _____ 전술한 땅의 형국으로부터의



동아방송대학 1단계 현상안

결과 이외에도 시스템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본관, 강의동, 실습동 모두 한 동으로 묶여 있지만 각개의 또 다른 기능들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관은 학교행정과 도서관, 강의동은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생회관, 실습동은 교수연구실 강의실 실습시설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곽으로의 접근이 필요했고, 특히 실습동의 경우 세트제작 창고에 별도의 서비스 진출입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방향에서 출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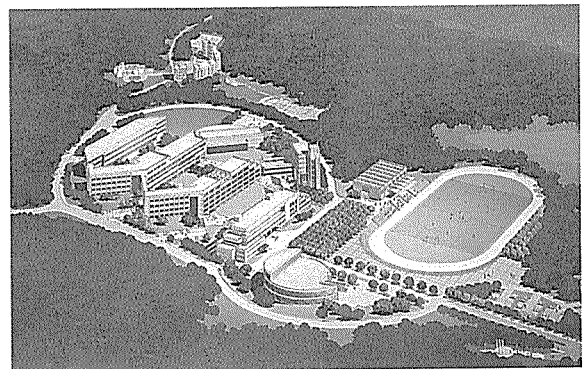
내부적으로는 동선의 필요로 외부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 환경의 구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하학적 완성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임석재 _____ 한가지 아쉬운 점은 타원형의 윤곽을 실제 사용자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머리 속에서만 머물고 도면에서나 파악이 가능한데 이점에 대한 의견은….

변 용 _____ 개교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대학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 앵글에는 잡히더군요. 타원형이 인식되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도시를 감상하는 외곽 순환도로와 같이 타원의 루프도로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도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루프도로를 통해 학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학생들에게는 관념의 축으로 작용하여 우리 학교는 동그란 원형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석재 _____ 기둥구조와 벽체구조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됩니다. 이 문제에



동아방송대학 2단계 현상안

대한 명확한 철학같은 것이 시도되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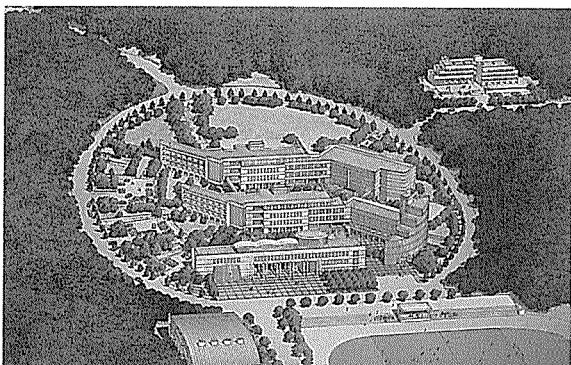
변 용 _____ 새삼 전통문제의 해결로 이 해법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롭지는 않지만 임교수의 지적대로 그것을 고민하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건축의 본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수사학적 어휘를 누하진입, 면의 중첩, 안마당 등과 같이 우리 건축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본관에서는 피로티의 누하진입이 강의동에서는 또 하나의 면이 되고 강의동에서 교수식당으로 가는 통로 등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기둥으로부터의 면의 이탈이 우리 건축의 회랑 등의 분위기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얽혀졌다면 수사적 접근의 시도가 어느 정도 실행을 본 셈이 됩니다.

임석재 _____ 기둥구조와 벽체구조 사이에 관계 설정 문제는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다른 내용을 보면 건축가가 모더니즘에 대해 갖는 건축론적 입장 혹은 역사적 입장 등이 담기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변 용 _____ 르 꼬르뷔제의 대린벽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구조 개념으로는 또 원리는 임교수의 지적에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로부터는 동선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특별한 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국한되어 설명하기보다는 건축사조에 대한 평소 생각을 좀 더 피력하는 것이 의미로울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즘에 대해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원도시가 지금까지 해 오고, 해 갈 작업과 생각에 오히려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



동아방송대학 최종안 조감도

로세스에서 시스템을 정하는 과정이나 조형의 위계설정 과정에 현대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통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인격체를 갖듯이 건축가면 전통에 관한 습관적 체질이 있어 전통적 바탕이 놓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가의 논리 전면에 전통이 우선하는 것은 초보적이기도 하고 교과서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석재 _____ 전통건축의 목구조에 대한 해석도 위 질문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요?

변 용 _____ 기본적으로 전술된 바와는 같지만 목구조개념으로 해석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는 일정한 프레임속에 기능의 모습대로 인필(In Fill)하는 의사가 있고, 강의동과 교수연구실 입면을 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수사적 의사의 범주 안에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임석재 _____ 구체적 예를 들어 본관에서 피로티가 그 위의 매스를 떠 받치는 모습이나 측면의 매스와 만나 는 부분에서의 기둥 처리가 흥미롭습니다. 기둥 자체의 모습도 그러한데, 이런 처리 등에서 의도된 것은 무엇입니까?

변 용 _____ 본관의 피로티는 대지의 고저차 더불어 타원안에 주캠퍼스의 게이트의 역할수행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합니다. 피로티의 기둥처리는 좀 역동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감각이고 자칫 큰 자연속에 너무 정적인 캠퍼스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임석재 _____ 벽돌, 돌, 메탈 등 여러 재료가 다소 혼란스럽게 섞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 하에서 그랬는지...



강의동연구실 복도에서 브릿지를 본 모습

변 용 _____ 두 가지 이유로 설명 할 수 있
겠습니다.

그 하나는 전체 마스터프랜개념에서 질서의
설정은 기하학적 완성형을 요구했고 그 도형은 대학의 다양성
을 구축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이 재료라고 보고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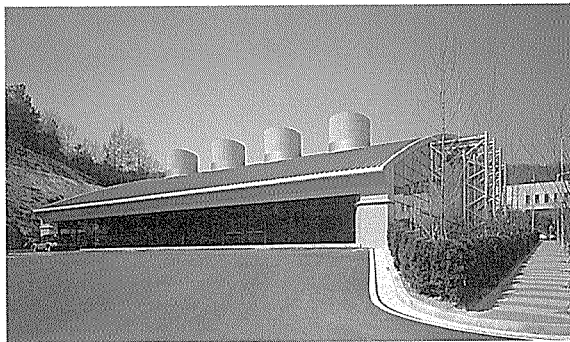
둘째는 건축과 건축이 만나게 될 때 매스와 매
스가 아니라 면과 면이 만나서 최소한 면과 매스가 만나도록 설
정하고 그것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때마다 재료를 달
리했지만 같은 위계에서는 같은 재료가 되도록 했지요. 예를 들
어 면이 석재이면 매스는 벽돌로 통일하여 다양하지만 일관된
질서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임석재 _____ 혹은 강의실을 보면 조적마감
이 고 기둥의 크기가 비효율적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
에 커튼월을 덧붙이고 있구요. 또 커튼월은 기둥구조의 효율성
을 뺏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어떤 의
도된 메시지 전달 목적 하에 나타난 현상인가요?

변 용 _____ 재료가 다양해진 이유 중에 다
른 한가지는 시간의 개념을 의식해서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이 이 학교는 동시에 캠퍼스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
시적으로 건축되어진 결과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하여 의식적으로 다양한 국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석재 _____ 형태적으로도 다양성이 충분
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첫번째 의도에서는 다
양성을 위해서, 반대로 두번째 의도에서는 통일성을 위해서 재
료를 혼용했다고 했습니다. 건축가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 용 _____ 재료의 혼용은 결과적으로 재
료를 세어보니 그러한 것이지만 벽돌, 석재, 체육관의 알루미늄



동아방송대학 체육관 전경

쉬트로 3분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레이어(Layer)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사였습니다. 통일성의 의도는 각각의 레이
어가 그 기능을 달리하지만, 그 레이어 간에 동일한 위계로 의
사할 때 예를 들어 강의동 전면 월과 실습동 전면의 월을 석재
로 통일한 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석재 _____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시작해 파트너쉽도 잘 지속시키며 한국 현대건축 발전
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현대건축도 원도시
이상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
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변 용 _____ 급변하는 건축사조에 대한 인
식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전
개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조와 경향들이 우리 작업에 알게 모르게 풍요롭
게 해주는 요인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들이 원도시건축이 다소 공격적이지 못하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혹시 단편적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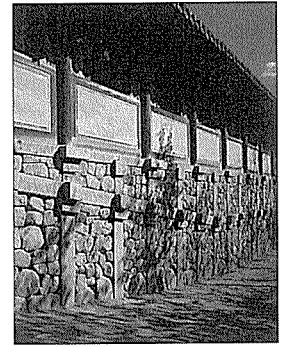
본의 아니게 관공서 건축이나 민간 대형건축
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건축기술에 의한 건축적 해결이 근대 모
더니즘의 전통에 머물고 유행의 물결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소멸되거나 일시적 현
상으로 보고 미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석재 _____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 용 _____ 지난 25년의 원도시건축 작업
과정들이 앞으로는 지난 25년의 경험과 그 근저의 논리는 지켜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변화가 있다면 그간 이성적 건축뿐
만 아니라 감성적 건축으로의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동아방송대학 교수연구실



불국사